

2026학년도 미술랭 모의고사 ★★-2회

국어 영역

홀수형

정답 및 해설

수능맛집국어연구소

정답 및 해설

공통

1	③	2	⑤	3	②	4	①	5	③
6	③	7	④	8	⑤	9	④	10	⑤
11	③	12	④	13	④	14	⑤	15	③
16	⑤	17	③	18	①	19	③	20	①
21	①	22	①	23	④	24	④	25	③
26	④	27	⑤	28	①	29	④	30	①
31	⑤	32	③	33	④	34	⑤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④	37	④	38	②	39	④
40	④	41	④	42	③	43	⑤	44	①
45	②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④	37	④	38	①	39	⑤
40	②	41	①	42	②	43	④	44	②
45	⑤								

공통

1. ③
- 2문단에서 일반화 규칙은 ‘하위 항목들의 목록을 그것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대체하는 규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제시하는 것’은 일반화 규칙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여러 사실로부터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구성’ 규칙과 유사하거나, 지문에 제시되지 않은 방식이다.
- ① 2문단에서 삭제 규칙은 ‘필수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나 반복되는 내용을 생략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3문단에서 독서는 ‘배경지식과 독서 목적을 바탕으로 무엇이 텍스트의 핵심 주제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④ 1문단에서 요약은 ‘텍스트의 표면적 정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구조와 필자의 의도까지 깊이 있게 파악’하는 활동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2문단에서 구성 규칙은 ‘일련의 사건이나 사실들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장을 추론하여 생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2. ⑤
- [A]의 첫 문장은 요약 규칙들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적극적인 사고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글의 핵심 주제를 판단해야 어떤 정보를 삭제하고 일반화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주제 판단’이 규칙 적용의 선행 조건임을 보여준다. 즉, 요약 규칙은 항상 순서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요약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A]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과 독서 목적을 바탕으로’ 핵심 주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요약 과정에 독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됨을 의미한다.
- ② [A]는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해야 ‘그 논리적 흐름을 요약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좋은 요약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논리적 흐름까지 반영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③ [A]의 마지막 문장은 요약하기가 ‘정보를 선별하고 압축하는 기술인 동시에, 자신의 이해 과정을 점검하고 심화시키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기술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함을 보여준다.
- ④ [A]는 핵심 주제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이 판단이 있어야’) 어떤 정보를 삭제하고 일반화할지 결정할 수 있다(‘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여, 주제 파악과 정보 선별 사이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3. ②
- <보기>의 학생은 ‘문반, 무반’, ‘역관, 의관, 율관’ 등 구체적인 하위 항목들을 각각 ‘양반’, ‘중인’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묶어 요약하였다. 이는 2문단에서 설명한 일반화 규칙, 즉 ‘하위 항목들의 목록을 그것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대체하는 규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 ① 요약은 핵심 내용을 선별하기 위해 세부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과정이므로, 정보를 빠뜨렸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요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③ 학생은 새로운 사실을 추론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정보들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 재분류하였다. 이는 추론을 통해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구성 규칙과는 거리가 멀다.
- ④ <보기>의 학생은 요약 규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였으므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성공적인 일반화는 배경지식이 잘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 ⑤ 학생은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를 ‘네 가지 신분 계층’이라는 틀로 재구조화하였다. 이는 텍스트의 구조를 성공적으로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4-9] 26 수능특강 주제통합 6강 ‘법 조문의 해석’ 연계

4. ①
- (가)는 법을 해석하는 세 가지 주요 관점(문언해석, 목적론적 해석, 통합으로서의 법 해석)의 개념과 특징, 한계 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는 ‘권리금’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 사례에서 1심, 2심, 대법원이 각각 (가)에서 설명한 해석 관점들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①은 두 글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법률의 변천이 아닌 해석 관점의 발전을 다룬다.
- ③ (가)는 통일된 원칙이 아닌 여러 대립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 ④ (나)는 여러 관점의 적용을 보여줄 뿐, 특정 관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 ⑤ (가)는 오히려 법관의 주관적 판단(목적론적 해석)이 가져올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5. ③
- [A]는 목적론적 해석이 ‘목적’이라는 불확정적인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석이 법관마다 달라’지고, 그 결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③은 이러한 [A]의 핵심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①은 문언해석의 한계이다.

②는 법관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맞지만, 그 결과로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기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

④는 통합으로서의 법 해석이 고려하는 요소이며, 목적론적 해석의 위험과는 거리가 멀다.

⑤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과도한 규제가 낳는 문제점과 유사하며, 법 해석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6. ③

(가)의 ‘통합으로서의 법 해석’은 법관이 ‘해당 법조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법률, 기존의 판례, 그리고 그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평의 원칙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가장 일관되게 이어주는 최선의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나)에서 ㉠ 대법원의 판결은 ‘법조문의 문언’, 입법의 ‘목적’, ‘헌법적 가치’, 그리고 ‘권리금 거래의 관행’이라는 사회적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법질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가장 조화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통합적 해석의 관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① ‘법 제정의 사회적 목표’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의 목적론적 해석에 해당하며, 이는 ㉡ 1심 법원이 아닌 ㉢ 2심 법원의 판단 방식이다.

② ‘법조문에 기록된 문구의 의미’를 따르는 것은 (가)의 문언해석에 해당하며, 이는 ㉢ 2심 법원이 아닌 ㉡ 1심 법원의 판단 방식이다.

④ ㉡ 1심 법원(문언해석)은 오히려 법관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⑤ ㉢ 2심 법원과 ㉠ 대법원은 모두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지만, 장기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여부에 대해 서로 상반된, 즉 ‘동일하지 않은’ 판단을 내렸다.

7. ④

㉡ ‘긴 연작 소설의 다음 편을 쓰는 작가’는 ‘통합으로서의 법 해석’의 방법을 비유한 것이다. 작가가 이전의 서사와 맥락에 부합하는 다음 이야기를 창작해야 하듯, 법관 역시 기존의 법질서, 판례, 사회적 원칙 등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의 법적 실천이라는 총체적인 맥락에 부합하는 해석을 내려야 한다. ④의 ‘법 해석의 결론이 사회의 맥락에 부합하도록’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며, ‘같은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은 해석의 결과가 법질서 전체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④는 해당 비유가 설명하는 해석의 방법론적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① 사회 변화에 맞춘 새로운 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는 새로운 해석을 하되 과거와의 일관성이라는 대전제를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새로움만을 강조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②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법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은 ㉡와 같은 해석 방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결과이다. 이는 ㉡가 비유하는 해석의 과정 및 방법 그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③ 법조문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설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는 이러한 문언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관점으므로 해당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불확정적인 개념을 확정하는 것은 법 해석 행위의 보편적 기능

이며, 이것은 법 해석의 목적이다. ㉡가 비유하는 ‘통합으로서의 법 해석’만이 지닌 고유한 방법론적 특징을 설명하지 못하는 포괄적인 진술이다.

8. ⑤

이 선지는 ‘권리금’의 개념과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을 교묘하게 혼동시킨 매우 정교한 함정이다. (나)의 첫 문단에 따르면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즉, <보기>의 상황에서 권리금은 ‘병’이 ‘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법은 임대인 ‘을’이 이 과정을 방해했을 때, 그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로 ‘을’이 ‘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은 ‘손해배상금’이지, ‘권리금’ 그 자체가 아니다. ‘을’이 권리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서술은 권리금의 지급 주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이는 문언해석의 관점이다. 법조문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재건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외의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방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② 이는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이다. (나)의 2심 법원처럼, 권리금 보호의 입법 목적이 ‘임차인의 투하 자본 회수’에 있다고 보고, 12년이라는 장기간 영업으로 ‘갑’이 이미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면, ‘을’의 거절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을’의 재건축 계획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을’은 신규 계약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갑’과 ‘병’의 권리금 계약은 이행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된다. 이후 ‘병’이 재건축된 건물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은 ‘갑’과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므로, ‘병’은 ‘갑’에게 권리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갑’의 영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는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갑’과 ‘병’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의 이행을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계약의 기반이 되는 권리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9. ④

㉠의 ‘지도록’은 ‘책임이나 의무를 맡다’는 의미로 ㉠의 ‘지다가’ 역시 생계를 맡아 진다는 맥락에서 그 의미가 가장 가깝다.

① ㉠의 ‘삼는다’는 어떤 것을 ‘-으로 여기거나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선택지의 ‘삼고’는 ‘아내로 맞이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거리가 멀다.

② ㉠의 ‘지닌다’는 한계라는 추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선택지의 ‘지닌’은 칼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몸에 소지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의 ‘세우고자’는 사상이나 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이룩하고자’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선택지의 ‘세워’는 ‘공로나 업적 따위를 이룩하다’는 뜻으로, 본래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⑤ ㉠의 ‘해석했다’는 주어진 대상의 의미를 특정 관점에 따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선택지의 ‘해석하여’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대상을 ‘풀이하여 밝혀냈다’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차이가 있다.

[10~13] 26 수능완성 실전학습 1강 ‘식품 첨가물’ 연계

10. ⑤

3문단은 고강도 감미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강도 감미료인 아세설팜 칼륨과 증량 감미료인 구아검이 함께 사용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두 유형의 감미료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열량 없는 단맛 구현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위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 보완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을 경쟁적인 기술로 파악하고 우열을 비교하며 읽는 것은, 지문에 제시된 내용 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독서 방법이다.

① 1문단에서 언급된 제로 콜라가 2, 3문단의 인공 감미료 첨가 기술이 발전했다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과정 파악이다.

② 2문단 마지막에서는 고강도 감미료의 문제점(쓴 뒷맛, 질감 부족)을 제시하고, 3문단 첫 문장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감미료와 첨가물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두 문단의 관계를 문제점-보완(해결)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법이다.

③ 4문단은 2, 3문단에서 설명한 감미료와 첨가물의 ‘최적 배합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관능 평가의 목적이라고 서술한다. 따라서 관능 평가의 목적과 기능에 주목하여 앞 내용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법이다.

④ 5문단은 제로 콜라에 포함된 인공 감미료의 안전성 기준(ADI)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2, 3문단에서 언급된 인공 감미료 섭취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안전성이라는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두 내용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법이다.

11. ③

지문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듯, 설탕은 단맛, 질감(보디감), 풍미의 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나의 물질로 수행한다. 반면, 제로 콜라는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단맛을 내는 ‘고강도 감미료’, 맛을 보완하는 ‘증량 감미료’, 질감을 만드는 ‘식이섬유’ 등 여러 물질의 정교한 조합을 사용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지문의 핵심적인 기술적 과제와 해결 방식을 가장 포괄적으로 추론한, 가장 적절한 이해이다.

① 3문단에서 에레트리톨은 청량한 단맛을 내어 고강도 감미료의 뒷맛을 가려주며, 설탕의 질감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부족한 질감을 완벽히 구현하기 위해 난소화성말토덱스트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나 구아검 등을 첨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레트리톨에 비해 수용성 식이섬유가 설탕의 질감을 더 완벽하게 구현하므로 ①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에서 관능 평가는 훈련된 패널들이 여러 항목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패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특성의 강도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과정임을 의미한다.

④ 2문단과 3문단에서는 고강도 감미료의 문제점으로 ‘단맛의 발현 및 지속 시간’, ‘쓴 뒷맛’, ‘질감 부족’ 등을 언급하며 여러 첨가물로 이를 보완한다고 설명한다. 지문은 이 문제들 간의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원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강도 감미료뿐만 아니라,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증량 감미료, 식이섬유, 구아검 등 다른 첨가물도 함께 사용된다. 따라서 원액이 감미료의 배합만으로

완성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2. ④

5문단에 따르면, 일일섭취허용량(ADI)은 동물 실험을 통해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은 최대량’을 먼저 산출한 뒤,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결정된다. 이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반면 ④는 유해한 영향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최소량’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므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5문단에서 ADI는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② 5문단에서 ADI를 결정할 때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 및 개인 간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안전장치를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제품의 권장 섭취량은 그 안에 포함된 인공 감미료 각각의 ADI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된다. 만약 감미료의 종류나 배합 비율이 달라진다면, 제품 전체의 안전성 기준 또한 그에 맞춰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권장 섭취량 역시 달라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안전계수를 적용하는 이유로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종간의 차이)’와 ‘개인 간의 민감도 차이’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13. ④

2문단에 따르면 고강도 감미료는 설탕과 달리 단맛이 오래 지속되거나 쓴 뒷맛을 남기는 문제가 있다. <보기>에서 B와 C는 모두 단맛 지속 시간이 짧지만 있으며, 또 B는 쓴맛이 약하고 C는 없음으로, 두 감미료를 조합하면 쓴맛을 최소화하여 맛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A는 단맛 지속 시간이 길지만, 쓴맛이 강하므로 A를 첨가하면 쓴맛의 강도를 낮출 수 없다. 또한 C의 경우 ADI가 1000mg/kg으로 가장 섭취 허용량이 높다. 따라서 B와 C의 조합은 맛의 측면에서 단맛을 유지하면서 쓴 맛을 최소화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합이다.

① <보기>에서 D는 쓴맛이 ‘없음’으로, 다른 물질의 쓴맛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② C와 D를 조합하면 질감과 점도가 모두 높아져 설탕과 유사한 맛을 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D의 경우 ADI가 10mg/kg로 매우 낮다. 따라서 D가 들어가면 ADI를 충족할 확률이 낮아진다.

③ <보기>에서 D는 단맛이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로 콜라는 단맛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단맛이 없는 D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제로 콜라를 제조할 수는 없다.

⑤ D의 ADI는 10mg/kg이다. 체중 50kg인 성인의 ADI는 $50\text{kg} \times 10\text{mg/kg} = 500\text{mg}$ 이다. 따라서 550mg를 섭취했다면 ADI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므로,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4. ⑤

5문단에서 하이데거는 예술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다고 말한다. 예술은 고대의 ‘테크네’처럼 세계를 ‘부품’이 아닌 의미 있는 존재로 경험하게 하는 ‘산출’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기술과 ‘올바로 공존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예술적 사유가 현대 기술의 본질인 ‘몰아세움’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는 의미이지, 예술적 사유가 현대 기술 그 자체를 대체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원은 기술의 폐기가 아닌, 기술과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① 1문단에서 기술을 '도구'로만 보는 관점은 기술의 '피상적인 모습'만을 설명하며 그 '위험성'을 포함한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기술을 도구로만 한정하여 바라볼 경우, 그 본질에 내재된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고대의 기술인 '테크네'는 자연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돕는 '산출'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연에 인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잠재성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대의 기술이 자연에 미리 정해진 특정한 요구(예: 에너지를 생산하라)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추론하는 것은 타당하다.

③ 3문단에서 현대 기술의 본질인 '몰아세움'은 자연을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저장고'이자 '부품'으로 전락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자연의 다양한 측면 중 오직 인간에게 유용한 측면, 즉 유용성을 중심으로 세계를 파악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 기술이 대상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성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는 '몰아세움'의 시선이 인간에게도 향하여, 인간 역시 효율성과 유용성의 잣대로 평가되는 '인적 자원'이라는 '부품'이 될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인간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부품으로 취급되는 것은, 인간 그 자체가 존엄한 목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타당한 추론이다.

15. ③

㉞는 현대 기술의 본질인 '몰아세움'이 지닌 위험과 그 속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 하이데거의 사유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㉞ 바로 뒤 문장에서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술의 본질인 '몰아세움'을 직시하고 성찰할 때, 비로소 기술로부터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구원이 '위험'의 외부나 그것을 피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험'(기술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깊이 사유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남을 의미한다. 즉, 위험의 본질을 파악하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의 본질이 지닌 위험성 자체가 그것을 극복할 실마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③의 진술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에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㉞의 문맥적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설명이다.

① 5문단에서 하이데거의 해결책은 기술과의 '올바로 공존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지, 기술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지문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

② 구원의 힘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서 나온다고 설명하지만, 5문단에서 제시된 구원의 힘은 '예술적 사유'를 통한 성찰과 관계의 재설정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는 다른 차원의 해법이다.

④ ㉞는 모든 위험이 저절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다. '직시하고 성찰'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구원의 힘이 '자라난다'는 조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⑤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의지를 지닌다"는 말 자체는 보편적으로 타당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선지는 구원의 주체를 '인간의 일반적인 의지'로 한정하고 있다. ㉞의 문맥에서 구원의 힘은 '인간의 의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위험한 본질'이라는 대상 자체를 깊이 파고드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즉,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내면에서만 찾는 ⑤는, 위험의 본질 자체에 구원의 실마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㉞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그 범주에서 이탈한 진술이다.

16. ⑤

<보기>는 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윗글의 하이데거 역시 기술의 '위험'을 경고한다. 두 관점 모두 현대 기술의 위

험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충하지 않겠군'이라는 최종 판단 자체는 적절하다. 하지만 그 근거로 제시된 "기술이 자연의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하이데거"라는 설명은 하이데거의 사상을 정반대로 왜곡한 것이다. 윗글 3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이 자연을 에너지 '부품'으로 취급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 자체를 '몰아세움'의 폭력성으로 규정하며 비판한다. 즉, 이 설명은 하이데거가 비판하는 현대 기술의 특징이지, 하이데거가 옹호하는 견해가 아니다.

① <보기>는 기술의 발전 방향이 '사회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본질을 '몰아세움'이라는 단일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기술의 운명을 가변적인 것으로 보는지,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다르므로 '상충한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② <보기>는 해결책으로 '민주적 참여'를 통한 '기술의 민주화'라는 사회적, 정치적 실천을 제시한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예술적 사유'를 통한 철학적, 심미적 성찰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다. 해결책의 차원이 다르므로 '상충한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③ 윗글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이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보기>는 인간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기술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실천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입장이 다르므로 '상충한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④ <보기>는 기술이 '가치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본다. 하이데거 역시 기술이 '몰아세움'이라는 특정 방식으로 세계를 드러내는(가치를 담은) '본질'을 지닌다고 보았으므로,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전제는 공유한다. 따라서 '상충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17. ③

㉞의 '전락(轉落)한다'는 '구를 전(轉)과 '떨어질 락(落)'이 결합한 단어로, 본래의 좋은 상태에서 나쁘고 낮은 상태로 '굴러 떨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문에서 이 단어는 주체적이고 의미 있던 자연이 현대 기술 앞에서 그 가치가 떨어져 수동적인 '부품'이나 '저장고'가 되어버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③의 '내몰린다'는 어떠한 상황이나 처지로 세차게 몰린다는 의미로, 자연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술의 논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대상으로 밀려나는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하다.

① 가치 판단이 배제된 중립적인 단어이다. '전락한다'에 담긴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라는 부정적 가치 하락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다.

② 어떤 과정 끝에 최종적인 결론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과정의 결과를 설명할 뿐, 그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다.

④ 어떤 대상의 성격이나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자연이 저장고로 '정의된다'는 의미는 통하지만, 원래의 지위에서 가치가 떨어졌다는 동적인 과정의 의미는 약하다.

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위치가 바뀐다는 의미로, 지위나 가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⑤의 문맥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18-21] 26 수능특강 현대소설 '새를 찾아서' 연계

18. ①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중략) 이전 부분에서는 새를 잡으려 했던 과거의 경험을,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선림원 절터에서 깨달음을 얻는 현재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 두 부분 모두 '흥분했다', '충격적이었다', '야멸스러운 외면', '조

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등 ‘나’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되므로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㉔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는 ‘나’이므로, ‘이야기 밖의 서술자’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서술은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 인식과 감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㉕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의 시각으로만 서술되고 있다. 누나나 일행 등 다른 인물의 시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㉖ 이 글에서 공간의 이동(집 → 선림원 절터)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서술의 중심은 공간의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나’가 겪는 경험과 내면의 변화이다.

㉗ 이 글은 ‘나’의 내면 독백과 회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물 간의 대화는 일부 삽입될 뿐 사건 전개에 중심축이 아니다.

19. ㉓

㉑에서 누나는 새를 잡기 위해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는다. 이어진 서술에서 ‘나’는 누나의 이러한 행동과 자신을 부축하지 않는 ‘야멸스러운 외면’에 대해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누나의 행위에 대해 ‘이전의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경험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㉒ ㉑에서 ‘언제나 허탕이었다’는 진술은, 외부에서 새를 잡으려던 기존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복된 실패는 바로 다음 문단에서 ‘우리 집’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를 잡으려는 새로운 시도로 이어지므로, 동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㉓ ㉑은 ‘나’가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직후에 나오는 누나의 반응이다. 누나는 ‘나’의 말에 감탄하며 동의하고, 이후 이들은 곧장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한다. 이는 새를 잡으려는 주된 무대가 외부에서 집 내부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㉔ ㉑은 선림원 절터라는 고요하고 정적인 공간에서 ‘나’가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새’에게 시선을 완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고조된 집중은 바로 다음 문장에서 새가 ‘솔방울로 변해서’ 버리는 초현실적 체험으로 이어지므로, 그 체험의 전 단계로서 적절한 이해이다.

㉕ ㉑은 일행을 찾아 헤매던 ‘나’가 우연히 그들을 만난 상황에서 실제로 자신보다 먼저 출발했음에도 자신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 발언으로, 상황에 대해 다시 인식하게 된 ‘나’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20. ㉑

지문에 따르면 ‘나’와 누나는 ‘윗방의 문을 활짝 열고’ ‘불빛을 이용’하여 새를 유인하는 등, ‘방 안’을 새를 잡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누나가 “새 잡았대이.”라고 확신에 차서 외치는 장면에서, 이 공간은 새라는 대상을 소유하려는 두 인물의 강한 욕망이 성공 직전에 이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곳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방 안’의 기능과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진술이다.

㉒ ‘나’가 누나의 ‘야멸스러운 외면’을 느끼며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공간은 ‘마당’이다. ‘방 안’은 새를 잡았다는 공동의 목표가 달성된(것처럼 보이는) 공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㉓ ‘방 안’은 새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외부 공간이지, 화자의 내면적 고뇌가 심화되는 추상적인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㉔ ‘방 안’은 새를 유인하여 잡으려는 함정이지, 새를 보호하는 안식처가 아니다. 이는 공간의 기능을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㉕ 누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 ‘방 안’은 새를 잡는 데 성공했다고 믿는 공간이다. 새를 잡으려는 시도가 최종적으로 좌절되었는지는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이 공간의 직접적인 기능은 ‘포획의 성공’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다.

21. ㉑

<보기>에 따르면 과거의 화자는 ‘새’를 소유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며, 이는 지문에서 새를 ‘움켜쥐’려던 행위로 구체화된다. 이 시도가 실패로 끝난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화자가 선림원 절터에서 ‘새가 솔방울로 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상적 가치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생성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과 서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즉, 과거의 목표지향적 태도와 그 실패가 현재의 성숙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탕이 되었음을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㉑이 가장 적절하다.

㉒ 화자의 깨달음은 이상적 가치가 ‘새’에서 ‘솔방울’이라는 다른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가치의 역전이 아니라, ‘새’와 ‘솔방울’이 서로 변환하는 ‘과정’ 그 자체에 본질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의 핵심을 잘못 파악한 진술이다.

㉓ ‘나’가 새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방향이 있어야 성찰이 가능함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지문에서 찾기는 어렵다. 화자는 방향의 결과로 성찰하게 된 것이지, 방향의 필요성을 깨닫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다.

㉔ 누나의 말은 새를 소유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발언으로, 이는 화자와 누나가 처음부터 공유했던 공통된 욕망이다. 화자의 욕망이 누나에게 ‘역전’되거나 ‘전이’ 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㉕ 화자가 덴찌꾼들을 타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타인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의 새를 남들보다 먼저 자신들이 독점하여 잡을 수 있다는 이기적인 발견 때문이었다. 이를 타인에 대한 성찰이나 이해로 보는 것은 인물의 내면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22-26] 26 수능특강 고전시가 ‘용부가’ 연계

22. ㉑

(가)는 '용부(庸婦)'라는 부정적 인물 유형을 설정하고, 그릇된 행동들('싸움질', '이간질', '음식 공론', '음담패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 마지막에 "그른 줄을 알았거든 고칠 개(改) 자 힘을 쓰고"라며 독자에게 교훈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나)는 '실용'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통해, 지구가 둥글고 세상의 중심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과학적 사실을 논증하며, 낡은 관습에 얽매어 이치를 탐구하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고 새로운 인식에 도달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하지만, 독자를 가르치고 깨우치려는 교훈적 목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㉑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㉒ (가)는 자연물이 아닌 인간의 행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나)는 자연의 질서를 근거로 삼지만 그 목적은 세태 비판보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 있다.

㉓ (가)는 가부장제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못 하는 '용부' 개인의 행실을 비판하고 있다. (나)는 중화사상을 비판하지만, 이를 상징이나 비유에 빗대는 '우의적' 방식이 아니라 논증과 사실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㉔ (가)의 서술자는 '용부'라는 특정 유형을 관찰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있으며, 자신의 과오를 직접 반성하는 목소리로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 '허자'는 '실용'의 가르침을 듣는 입장이지만, 그가 무지를 점차 깨달아가는 내면의 변화 과정이 서사의 중심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가)는 부정적인 현실을 보여줄 뿐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제시하지 않는다. (나) 역시 이상적인 세계보다는 올바른 인식 태도를 강조한다.

23. ④

④는 당시 여성의 주된 역할이었던 길쌈(물레, 씨아)을 하지 않고 하품과 기지개만 켜는 ‘뽕덕어멈’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개인의 태만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구절이다. ⑥는 ‘실옹’이 ‘허자’와의 대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비판으로, ‘허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낡은 관념에 안주하여 새로운 이치를 탐구하지 않는 보편적인 세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④는 두 구절이 각 작품에서 지니는 의미와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진술이다.

① ④는 개인의 게으른 성품에서 비롯된 선택적 행위이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다. ⑥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탐구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부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② ④는 ‘뽕덕어멈’이라는 특정한 부정적 인물의 행실을 예시로 든 것이지, 당대 여성 전체의 ‘보편적 삶’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⑥는 ‘허자’를 넘어 ‘세상 사람들’ 전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한된 문제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④는 개인의 그릇된 행실과 도덕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이를 ‘사회의 억압적 구조’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화자는 ‘뽕덕어멈’의 행실을 비판하고 경계하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교훈적 태도를 보이므로, ‘체념적 태도’로 보기 어렵다.

⑥는 진리를 깨달은 인물(실옹)의 생각이 맞지만, 그 내용은 ‘세태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명시한 ④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다.

24. ④

(나)에서 ‘실옹’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아라사’와 ‘금변국’의 지리적 위치와 천정 각도, 경도 차이와 같은 천문학적, 지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해와 달이 바다에서 나왔다가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경험적 관찰을 활용한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권위 있는 옛 성인이나 경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세상 사람들은 옛것에 안주하여 그저 습관처럼 따르면서 새로운 것을 살피지 않는다”고 말하며,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탐구하고 사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④는 실옹의 말하기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글 전체가 ‘실옹’이 묻고 ‘허자’가 답하거나, ‘실옹’이 설명하고 ‘허자’의 동의를 구하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허자’의 사고를 점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② “아라사의 천정은 북쪽으로 20도이고, 금변국의 천정은 남쪽으로 남극과 60도를 이룬다”거나 “두 지역 간 거리는 2만 2,500리이다”와 같이 구체적인 지명과 수치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바다에서 보면 해와 달이 바다에서 나왔다가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누구나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땅이 평평하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⑤ ‘허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편협한 인식을 지적한 후,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 전체가 가진 문제점으로 논의를 확장하여 “감감하게 모르는 것”이라며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25. ③

[A]에서는 ‘뽕덕어멈’의 개인적인 결함과 비도덕적인 행실이 집중적으로 묘사된다. [A]는 ‘싸움질’, ‘이간질’, ‘음식 공론’, ‘푸닥거리’ 등 인물 자체의 문제적 성품과 행동을 열거한다. 반면, [B]에서는 이러한 행실이 타

인에게 미치는 결과와 피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B]는 ‘아들은 홀아비요’, ‘남의 집 결판일네’처럼 며느리와 딸의 가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가부지죄 매 맞히고’, ‘무죄한 자식 치기’와 같이 남편과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등, 인물의 행동이 주변 인물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① [A]와 [B] 모두 개인적 결함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다루고 있다. [A]의 ‘이간질’은 관계의 문제점이며, [B]의 ‘음란’은 개인적 결함이다. 그러나 [B]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한 사회적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A]는 가난의 ‘원인’이 되는 행실을 보여줄 뿐, 가난에 이르게 된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B]는 인물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나열하고 있으며, 가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의 화자는 ‘천성이 그러한가 / 배워서 저러한가’라고 물으며, 인물의 문제가 타고난 것인지 학습된 것인지 명확히 단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A]와 [B]를 각각 타고난 성품과 학습된 습관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A]와 [B]는 모두 ‘뽕덕어멈’의 부정적인 행적을 일방적으로 열거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인물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성찰의 계기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26. ④

(가)의 뽕덕 어멈은 <보기>에서 언급한 ‘개인의 일탈’을 보여 주는 부정적 인물이다. ④에서 ‘집단의 기강이 재확립’된다는 진술은, 공동체의 도덕 규범이 무너졌음을 전제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뽕덕 어멈의 부도덕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일 뿐이므로, 이를 집단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단지 개인적 일탈을 벌인 뽕덕 어멈이 처벌받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집단의 기강이 재확립’된다는 진술은 <보기>와 지문의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뽕덕어멈’이 보이는 ‘아이 핑계’나 ‘음식 추심’과 같은 행동들은 <보기>의 설명처럼, 독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특정 대상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② (나)에서 ‘실옹’은 ‘허자’ 개인의 생각을 교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글의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은 … 감감하게 모르는 것이다”라며 비판의 대상을 ‘집단의 인식’으로 확장한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계몽적 의도’와 정확히 부합한다.

③ (가)의 ‘무례무의 음란’은 당시 사회의 ‘윤리적 규범’을 정면으로 어긴 ‘개인의 일탈’에 해당한다. (나)에서 ‘감감하게 모르는 것’은 관찰과 탐구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즉 ‘이성적 사유’가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⑤ (가)의 마지막 구절 “고칠 개자 힘을 쓰고”는 독자에게 ‘윤리적 성찰’을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부분이다. (나)에서 “옆쪽의 세계도 없고 반대쪽의 세계도 없이 모두 똑같은 정기준의 세계이다”라는 ‘실옹’의 결론은, 중화사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27-30] 26 수능완성 현대시 ‘오랑캐꽃’ 연계

27. ⑤

(가)에서 화자는 ‘오랑캐꽃’에게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연민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입하고, 이를 통해 대상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꽃’은 화자의 희생적 삶이 끝난 후 무덤 위에 피어날 미래의 결과물이자 희망의 상징이다. 화자의 슬픔이라는 정서는 ‘님’

을 향하고 있을 뿐, ‘꽃’이라는 자연물에 직접적으로 이입되고 있지 않다. 또한 (나)와 달리 (가)의 경우, 미래 시제를 통한 기대감 등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 미래에 대한 희망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① (가)는 ‘오랑캐꽃’을 마치 사람처럼 대하여 ‘울어 보렴’이라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슬픔이라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② (나)는 ‘오직 님을 향하여’라는 구절에서 행위의 대상을 ‘님’으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와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과거 시제가 드러나기는 하나, (가)는 첫 연에서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 까닭이라 전한다’와 같이, 시적 대상의 이름에 얽힌 설화적 이야기와 더불어, ‘고려 장군님, 백 년’ 등의 표현을 통해 그 역사적 의미를 제시한다. 반면 (나)에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제시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는 ‘나의 노래’, ‘나의 가슴에’, ‘나는 울지도 않았다’, ‘내 슬픔은’ 등 화자인 ‘나’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를 시종일관 반복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반면 (가)는 ‘우리의’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올 뿐, 화자가 전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28. ①

(가)에서 화자는 ㉠ ‘오랑캐꽃’을 보며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겪었던 과거의 역사적 비극을 떠올리고, 이로 인해 현재의 슬픔을 느낀다.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희생적인 ‘노래가 끝나는 날’에 무덤 위에 피어날 ㉡ ‘꽃’을 노래하는데, 이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긍정적 가치를 상징한다. 따라서 ㉠가 과거의 비극과 연결되고 ㉡가 미래의 희망과 연결된다는 ①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② ㉠는 화자가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라고 말하는 대상으로, 연민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는 화자의 의지를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희생적 의지가 끝까지 관철된 후에 나타날 결과물이자 보상이다.

③ 화자는 ㉠에게 연민을 느끼지만 이를 동질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화자는 ㉡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 이후에 피어날 것으로 여기고 있다.

④ ㉡는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의 아름다운 가치를 상징하지만, ㉠는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환기하는 소재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로 보기는 어렵다.

⑤ 두 시어 모두 민족의 비극적 현실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슬픔과 연민을, (나)의 화자는 슬픔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므로, 두 화자 모두에게 ‘체념적 태도’를 유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9. ④

5연에서 화자는 ‘내 슬픔은 / 오직 님을 향하여’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서가 ‘님’이라는 특정 대상을 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슬픔이다. 그러나 8연에 이르러 화자는 이 슬픔이 담긴 ‘나의 노래는 벗과 함께 느끼었노라’라고 하여,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지적 연대감을 드러낸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내면에 있던 슬픔이라는 개인적 정서를 외부의 존재인 ‘벗’과 공유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④는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가장 적절하게 파악한 진술이다.

① 1연과 마지막 연에서 ‘노래가 끝나는 날’은 화자의 희생적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 결과로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고 하여 희망적인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 이는 절망이나 체념과는 거리가 먼 의지적 태도이다.

② 3연과 7연에서 울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모습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님을 향하’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개인적 감정을 의지적으로 절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4연의 ‘화살같이 날아가거라’와 6연의 ‘내 과녁은 / 오직 님을 향하여’라는 표현은 목표를 향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⑤ 2연에서 ‘새로운 묘연’의 ‘옛 흠이 향그러’라고 한 것은, 죽음(옛 것)이 새로운 시작(새것)의 향기로운 바탕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현재에 대한 비판이 아닌, 희생을 통한 미래 창조의 신념을 보여준다.

30. ①

(가)에서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은 그 뒷모양이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는 외부의 시각적 유사성에서 비롯되었다. 이 이름은 우리 민족이 오랑캐에게 ‘쫓겨 갔단다’는 고난의 역사를 환기하는 매개체가 된다. 하지만 ①번 선지는 이러한 관계를 왜곡하여, 마치 공동체의 고난 자체가 ‘외부의 오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작품에 따르면 공동체의 고난은 ‘고려 장군님’으로 대표되는 외부 세력의 침략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이름에 얽힌 오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사건의 원인과 상징의 유래를 뒤섞어 서술하였으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② (나)의 화자는 자신의 ‘노래가 끝나는 날’, 즉 자신의 희생적 삶이 완수된 후에 ‘아름다운 꽃’이라는 긍정적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기>의 설명처럼, 현재의 고통을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희생적 과정’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③ (가)에서 화자가 연약한 ‘오랑캐꽃’을 보호하려는 듯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주려는 행위는 고난을 겪은 민중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 반면 (나)에서 ‘새’에게 ‘화살같이 날아가거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님’으로 상징되는 목표를 향한 화자의 확고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준다.

④ (가)의 ‘쫓겨 갔단다’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난의 ‘과거 기억’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나)에서 ‘슬피 바라는 마음’은 단순히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님’이라는 ‘미래의 지향점’을 성취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현재의 고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울어 보렴’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받는 민중의 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위로의 태도이다. (나)에서 ‘울지도 았’었다는 것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개인적 감정을 의지적으로 절제하며 자아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31-34] 26 EBS 고전소설 ‘심생전’ 연계

31. ⑤

㉠에서 심생이 매일 밤 담을 넘어가는 행위는 소녀를 향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심생이 절로 가는 행위는 ‘집의 압력’과 ‘친구들에게 이끌리어’ 마지못해 떠나는 것으로, 이는 소녀를 향한 애정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외부의 강요에

의한 이별의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㉔를 ‘애정’과 관련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① ㉔는 심생이 사회적 금기를 무릅쓰고 소녀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의지적 행위’이다. 반면 ㉔는 집안의 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두 행동의 성격을 정확히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㉔에서 심생이 20일간 계속해서 담을 넘어오는 상황이 촉발되자, ㉔에서 ‘소녀’가 직접 나서서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㉔에서 심생이 계속 찾아오자 소녀는 ‘번민으로 잠을 못 이루’고 ‘긴 한숨 짧은 탄식’을 내쉬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㉔에서 심생이 절로 떠나가자 소녀는 상사병이 깊어져 결국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 상황’과 연결된다.

④ ㉔와 ㉔는 심생과 소녀가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만남’의 과정과 관련된다. 반면, ㉔는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준다.

32. ③

[A]에서 소녀는 심생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 첫째, "남군은 ~ 그분 맞죠?"라며 상대의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음을 밝힌다. 둘째, "제가 소릴 지르면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라며 심생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상기시키는 경고를 한다. 셋째, "제 말대로 하시면 ~ 맞이할게요"라며 조건을 제시한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녀는 심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상황의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있다.

① 자신의 우월한 처지를 과시하기보다는,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목적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②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기보다는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불안하기보다는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④ 심생이 명시적으로 제안한 것은 없으며, 소녀는 제안을 수용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안을 통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⑤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33. ④

소녀가 쓴 편지(유서)는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받아들이는 체념적 어조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한(恨)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이 한의 내용들은 부모에 대한 도리, 시부모에 대한 도리,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 원인은 모두 심생과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소녀가 심생을 은근히 원망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지 전체에서 소녀는 “소녀처럼 박명란 몸이”, “뜻밖에 악연에 얽히었군요”와 같이 자신의 불행을 운명이나 팔자 탓으로 돌릴 뿐, 심생에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책임을 묻는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심생의 성공을 기원하며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④는 편지의 어조와 내용을 잘못 파악한 부적절한 설명이다.

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라옵건대 도련님은 소녀를 염두에 두시지 마옵시고, 더욱 글공부에 힘쓰시어 일찍이 청운(靑雲)의 뜻을 이루옵소서. 옥체를 내내 보중하옵기 천만 비읍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동시에 상대방의 안녕과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② 편지에 제시된 세 가지 한은 각각 딸, 며느리, 아내로서의 역할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원통함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③ “도련님께옵서 떠나신 이후로 우연히 한 병을 얻어 점점 골수에 사무쳐”라는 구절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통해 심생과의 이별이 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⑤ “비록 연약한 풀이 바람에 쓰러지고 시들은 꽃잎이 진흙이 된다 하온들”과 같이 자신을 자연물(풀, 꽃잎)에 빗대어 비극적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호사다마’, ‘주진지계’, ‘고당학발’ 등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4. ⑤

<보기>에 따르면 위 작품은 작가가 ‘당대 윤리적 규범의 문제점’을 은밀하게 고발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⑤번 선지에서 소녀가 스스로를 ‘시부모가 모르는 며느리’라고 인식하는 행위의 발단이 심생의 우유부단함을 고려한다면, 이는 은연중에 당대 윤리적 규범의 모순을 고발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지의 맥락에서 소녀의 이 말은, 자신이 처한 비극적 상황과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한탄이자 자기 고백이다. 즉, 이는 소녀가 내면화한 유교적 규범에 따라 스스로를 부정한 존재로 규정하는 순종적인 모습의 발현일 뿐, 대상인 심생에게 이러한 모순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심생이 밤중에 담을 넘어와 소녀를 붙잡는 행위는, 남녀 간의 만남을 엄격히 금하는 당시의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자신의 감정적 끌림, 즉 ‘개인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② 소녀가 편지에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게 된 것(첫째 한)과 정식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해 ‘부정한 자취’를 남기게 된 것(둘째 한)을 한탄하는 모습은, 효(孝)와 열(烈)이라는 ‘유교적 규범’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소녀가 정성껏 지어준 옷을 심생이 집안의 눈치를 보며 입지 못하는 것은, 소녀에 대한 사랑(개인적 욕망)과 양반으로서의 체면(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망설이는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④ 심생이 소녀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 하면서도 집안의 압력에 못이겨 절로 들어가는 모습은, <보기>의 설명처럼 개인적 사랑에 대한 열망과 가문의 명이라는 신분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겪는 ‘내적 갈등’을 잘 보여준다.

화법과 작문

35. ②

진행자는 방송의 흐름에 따라 청취자의 고민에 대한 공감, 문제 상황 분석, 해결 방안 제안이라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말 속상했겠네요.”라고 말하며 사연을 보낸 학생의 고민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어서 “이런 갈등은 보통 ‘너-전달법’ 때문에 생겨요.”라고 말하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쿠션 화법’이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좋은 의견인데, 나는… 걱정이 돼. 혹시 다른 방법도 같이 찾아볼까?”와 같은 예시와 함께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① 진행자는 ‘너-전달법’이라는 문제 상황과 ‘쿠션 화법’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상반된 두 관점을 절충하고 있지 않다.

③ ‘쿠션 화법’과 같은 용어를 소개하고는 있지만, 이를 단계별로 나누어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진행자는 청취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조언할 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고 있지 않다.
 ⑤ 진행자는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고 반박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36. ④

진행자가 조언한 ‘쿠션 화법’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칭찬이나 동의의 말을 덧붙여 상대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④는 “시안 만들어 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며 후배의 노고를 먼저 인정하고 칭찬하는 ‘쿠션’ 표현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그 후, “우리 동아리의 활기찬 느낌을 더 살릴 수 있는”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며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까?”라고 부드럽게 제안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쿠션 화법’의 적용 사례이다.

- ① “전혀 안 어울리는데?”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고생 많았네.”라며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아?”라는 표현은 현재의 디자인이 좋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③ “이 디자인은 좀 곤란해.”라고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내가 다시 만들어 볼게.”라는 말은 후배의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
 ⑤ “시안 정말 잘 만들었다!”라며 칭찬했지만, 곧바로 “단점이 있어.”라고 말하며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상대를 평가하는 느낌을 주므로 ‘쿠션 화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37. ④

청취자 1’은 “쿠션 화법이라는 명칭의 의미는 뭐지?”라고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지문의 진행자는 “‘쿠션 화법’은 ... 본격적인 말을 하기 전에 쿠션처럼 부드러운 표현을 덧붙여 상대방이 받을 충격을 줄여주는 대화 기술입니다.”라고 이미 그 명칭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청취자 1’이 궁금해한 내용은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반면, ‘청취자 2’가 우려하는 ‘친구가 좋게 말하는 척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므로 ‘청취자 1’과 ‘청취자 2’가 ‘모두’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표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청취자 1’은 “나도 직설적으로 말해서 친구들이 서운해질 때가 많았는데”라고 말하며, 방송 내용을 자신의 실제 경험과 직접 연결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② ‘청취자 2’는 ‘쿠션 화법’을 사용하더라도 친구가 그 진정성을 오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며 질문하고 있다.
 ③ ‘청취자 1’은 방송을 듣고 “내 문제를 알게 됐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존 화법이 문제였음을 깨닫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청취자 1’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해결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청취자 2’는 해결 방안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으므로, ‘청취자 1’과 달리 긍정적인 평가만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진술은 적절하다.

38. ②

㉠에서 시청 직원은 시민 대표가 제안한 ‘문화 강좌실’과 ‘쉼터 공원’ 조성 요구에 대해, “배정된 예산이 한정적이라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

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요구를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입장이 처한 제약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 ① ㉡에서 시민 대표는 시청 직원의 초기 제안(표준 설계안)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제안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설문 조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③ ㉢에서 시민 대표는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체력 단련실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고 ‘다목적 강좌실’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초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④ ㉣에서 시청 직원은 상대방의 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직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라며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따라서 ㉣ 자체만으로는 논의를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기능까지 나타내지는 않는다.
 ⑤ ㉤에서 시민 대표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검토 약속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을 뿐, 합의된 내용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39. ④

(나)의 1문단은 협상 과정을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과정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생’과 ‘윈윈 전략’이라는 표현을 통해 양측 모두가 만족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 타결 이후 양측의 ‘상반된 반응’을 추가하라는 요구는 최종 글의 내용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영된 수정 요구로 적절하지 않다.

- ① ④의 요구에 따라, 초고에는 없던 ‘나는 시청에서 주관한 ‘청소년 정책 참여단’의 일원으로서’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명확히 드러났다.
 ② ⑥의 요구에 따라, 초고의 ‘잘 되었다’와 같은 평이한 표현이 (나)에서는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과정이었다’와 같이 필자의 긍정적인 관점과 평가가 드러나는 어휘로 수정되었다.
 ③ ③의 요구에 따라, (나)에서는 “처음에는 ...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나의 예상과 달리...”라고 서술하여, 자신의 초기 예상과 실제 협상 양상을 대비시키고 있다.
 ⑤ ⑥의 요구에 따라, (나)에서는 “협상은 ... 창의적인 과정이었다.”라고 서술하여, 협상 과정 자체에 대한 필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명확하게 덧붙였다.

40. ④

(나)에서 필자는 시청 직원이 초기에 제시한 표준 설계안에 대해, ‘예산을 중시하는 시청’의 입장이라고 서술하고 있을 뿐, 이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근거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필자는 시청 직원이 처음에는 예산 문제로 난색을 보였지만, 결국 시민 대표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검토를 약속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 설계안을 시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근거로 언급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에서 시민 대표는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한다. 이는 (나)에서 필자가 “‘주민 설문 조사’라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 주민 다수의 목소리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한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
 ② (가)에서 시청 직원은 “배정된 예산이 한정적이라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나)에서 필자가 “처음에는 예산을 중시하는 시청과 복지를 중시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 예상했다.”라고 서술한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

- ③ (가)에서 시민 대표는 “주민들로 구성된 조경 봉사단이 …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제안한다. 이는 (나)에서 필자가 “시청 측이 우려하는 예산 문제에 대해 ‘조경 봉사단’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보였다.”라고 평가한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
- ⑤ (가)에서 시민 대표는 ‘가변형 벽체를 설치한 다목적 강좌실’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이는 (나)에서 필자가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다목적 강좌실’이라는 창의적인 해결책은,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평가한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

41. ④

시민 대표는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청 직원이 우려하는 비용 문제에 대해, ‘조경 봉사단’의 자발적 참여를 제안하며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① 시청 직원은 표준 설계안을 초기에 제시할 뿐, 그 장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설득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민 대표의 대안을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② 시민 대표는 예산 문제를 언급한 시청 직원의 의견에 맞춰 대안을 제시할 뿐, 쟁점을 예산 문제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 ③ 시청 직원은 시민 대표의 ‘조경 봉사단’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변형 벽체’ 제안도 좋은 대안이라고 평가하는 등, 초기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가)의 협상은 한쪽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합의안에 대한 거부를 반복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42. ③

(나)는 ‘시민 대표의 철저한 준비(설문 조사, 대안 제시)’와 ‘시청 직원의 열린 자세’ 등 협상에 참여한 양측의 소통 방식과 태도를 성공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는 태도’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며, 협상의 성공 요인을 참여자들의 태도와 방식에서 찾고 있다.

- ① (나)는 참여자들의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제시, 대안 제안 등 논리적인 소통 방식과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② (나)는 협상 참관에 대한 학생의 개인적인 감상문으로, 사회적 파급 효과를 예측하는 통계 자료는 활용되지 않았다.
- ④ (나)는 절충안의 한계를 지적하기보다, 양측의 노력을 통해 도출된 해결책을 ‘창의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나)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이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43. ⑤

글쓰기 계획에는 결론에서 독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청년 문화 구역’ 조성과 ‘지역 사회 연계’라는 두 날개를 달고, 우리 누리 축제가 다시 한번 모두에게 사랑받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여 제안에 대한 필자의 기대를 밝히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학생들의 관심이나 참여를 직접적으로 요청하거나 촉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 ① 1문단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누리 축제는 … 최근 몇 년간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라고 현황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고 …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 ② 2문단에서 “가장 큰 원인은 축제의 핵심 콘텐츠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3문단과 4문단에서 ‘청년 문화 구역 조성’, ‘지역 사회 자원 연계’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3문단에서 ‘동아리 체험 부스, 중고 물품 장터, 버스킹 공연’을, 4문단에서 ‘지역 공방 체험 프로그램’, ‘우리 동네 가게 지도 만들기’를 해결 방안의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5문단에서 “우리 누리 축제가 다시 한번 모두에게 사랑받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여 제안이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밝히고 있다.

44. ①

제시된 제목은 <보기>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본문의 핵심 활성화 방안인 ‘청년’과 ‘지역’이라는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축제가 ‘날개를 달고 다시 비상한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침체된 축제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글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청년’은 포함하고 있지만 ‘지역’이라는 핵심어가 빠져 있으며,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지역’은 포함하고 있지만 ‘청년’이라는 핵심어가 빠져 있으며, 비유가 아닌 의문형 표현을 사용했다.
- ④ ‘청년’과 ‘지역’이라는 핵심어는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뿐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잠자는 축제를 깨운다’는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었지만, ‘청년’이라는 핵심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45. ②

이 문항의 핵심은 ‘청년 문화 구역’ 조성이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완성하는 것이다. <보기>의 예시는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했던 레트로 축제가 결국 어디든 비슷해졌다’는 내용으로, 이는 청년 문화 역시 또 다른 획일성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㉔: ‘초고’의 원고는 누리 축제가 ‘지역의 특색은 사라지고 평범한 축제’가 된 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런데 반박의 예시는 ‘청년 문화’ 역시 획일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청년 문화 구역’ 조성이 오히려 축제의 고유한 본질(지역의 특색)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㉕: ㉔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왜 청년 문화 구역이 축제의 본질을 흐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와야 한다. 청년 문화라는 것이 또 다른 획일성으로 작용하여, ‘초고’가 본래 해결하고자 했던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오히려 가릴 수 있다는 논리가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㉔와 ㉕가 가장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㉒가 정답이다.

- ① ㉕의 ‘상업적 속성’은 <보기>의 예시(레트로 축제의 획일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상업성과 획일성은 다른 개념이다.
- ③ ‘세대 간 갈등’이라는 말은 매우 그럴듯한 비판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기>의 예시는 갈등이 아닌 ‘획일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논리적 근거와 주장이 어긋난다.
- ④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자체는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예시는 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된 이후의 ‘획일화’ 문제를 보여주므로 논리적 연결고리가 약하다.
- 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㉔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답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㉕의 이유가 ‘외부 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3문단이 아닌 2문단의 문제점을 끌어온 것이며, <보기>의 예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언어와 매체

35. ④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했듯이, 파생적 사동문이라도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직접 사동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의성을 띠지 않는다. ‘옷다’라는 행위는 감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으로, 타인이 물리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시킬 수 있는 동작이 아니다. (예: 철수가 우리의 입을 손으로 움직여 웃게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철수가 … 우리를 웃겼다.’는 철수가 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되므로 중의적이지 않다.

① ‘먹였다’: 누나가 동생의 입에 약을 직접 넣어 주었다는 직접 사동과, 동생 스스로 약을 먹도록 시켰다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② ‘지웠다’: 아버지가 아들의 등에 짐을 직접 올려 주었다는 직접 사동과, 아들 스스로 짐을 지도록 명령했다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③ ‘입혔다’: 코치가 선수의 옷 입는 행위를 직접 도와주었다는 직접 사동과, 선수 스스로 옷을 더 껴입도록 지시했다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⑤ ‘물리쳤다’: 엄마가 아기의 입에 우유병을 직접 넣어 주었다는 직접 사동과, 아기 스스로 우유병을 물도록 유도하거나 시켰다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36. ④

㉔의 서술어 ‘낮추었다’는 형용사 ‘낮다’에서 파생된 사동사로, 주체(동생)가 대상(음악 소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 행위는 주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애초에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중의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사 ‘스스로’는 피사동주(행위를 하는 주체)의 자발적인 행위를 강조할 때 쓰여 주로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㉔가 중의적이라는 전제도 틀렸고, ‘스스로’를 통해 직접 사동의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설명도 잘못되었다.

① ㉔는 경찰이 직접 채웠다는 ‘직접 사동’과, 범인 스스로 차도록 시켰다는 ‘간접 사동’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문장이다. 여기에 부사 ‘손수’를 추가하면 주체의 직접적인 행위가 강조되므로 직접 사동의 의미로 한정된다.

② ㉔는 ‘-게 하다’ 구성의 통사적 사동문이다. 지문에 설명된 대로, 통사적 사동문은 주체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시 등을 통해 행위를 유발하는 간접 사동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㉔의 ‘읽히다’는 파생적 사동문이지만, ‘읽다’라는 행위의 의미적 특성상 상사가 부하 직원의 눈을 대신하여 읽어주는 식의 직접 사동은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장은 상사가 읽도록 지시했다는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되므로 중의성을 띠지 않는다.

⑤ ㉔의 ‘씻겼다’는 엄마가 직접 씻겨주었다는 ‘직접 사동’과, 아이 스스로 씻도록 시켰다는 ‘간접 사동’의 중의성을 띤다. 이 중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통사적 사동 구성인 ‘씻게 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37. ④

㉑과 ㉒에는 세 가지 형태의 부사어가 모두 나타난다. 부사에 해당하는 것은 ㉑의 ‘굉장히’, ㉒의 ‘바로’이며, 용언의 활용형에 해당하는 것은 ㉑의 ‘아름답게’(형용사 ‘아름답다’ + 부사형 어미 ‘-게’)이다. 마지막으로 부사에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는 ㉒의 ‘무척이나’(부사 ‘무척’ + 보조사 ‘이나’)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㉑과 ㉒을 통해 세 가지 형태의 부사어를 모두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① ‘모두 서술어를 꾸미고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㉑에서 ‘굉장히’는 뒤따르는 부사어인 ‘아름답게’를 수식하고, ㉒에서 ‘바로’는 체언인 ‘너’를 수식한다. 부사어는 서술어뿐만 아니라 다른 부사어, 관형어, 체언, 문장 전체 등 다양한 성분을 수식할 수 있다.

② ‘모두 부사어 기능을 담당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㉑에는 부사절 ‘(집이) 아름답게’가 있지만, ㉒의 ‘내가 무척이나 사랑하는’은 뒤따르는 체언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며, ㉓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없다.

③ ‘모두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 부사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기>에 제시된 문장들의 부사어(굉장히, 아름답게, 무척이나, 바로, 모름지기, 함께)는 모두 생략해도 문장의 기본 골격이 유지되는 수의적 부사어이다.

⑤ ‘문장 내의 위치 이동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㉑과 ㉓을 비교하면, 문장부사인 ‘모름지기’가 문장 중간과 맨 앞으로 자유롭게 이동했음에도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위치 이동이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8. ①

제시된 문제는 <보기 1>의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규정을 <보기 2>의 예문에 적용하는 문항이다.

㉑의 ‘사름’은 높임의 대상이 아닌 사람 명사이며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 ‘ㄷ’이므로, 규정에 따라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한다.

㉒의 ‘그되’는 뒤따르는 ‘아바님’을 통해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명사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다.

㉓의 ‘구름’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명사이므로, 규정에 따라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다.

이에 따라 ㉑, ㉒, ㉓에 들어갈 조사는 순서대로 ‘이, ㅅ, ㅅ’이며,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이다.

39. ⑤

음운의 개수를 바꾸는 음운 변동은 첨가, 탈락, 축약이다. (나) ‘색연필’은 ‘ㄴ’이 첨가되어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다. (라) ‘흙하고’는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나)와 (라)는 모두 음운의 개수를 바꾸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① (가)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고, (다)는 ‘ㄴ’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다. 따라서 ‘모두 늘어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는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지만, (마)는 교체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모두 줄어들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라)는 자음군 단순화와 거센소리되기, 2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만, (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1회의 음운 변동만 일어난다. 따라서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마)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④ 음운 변동 중 첨가가 일어난 것은 (나)와 (다)뿐이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0. ②

(가)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 급식 문제를 다루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한 성분 분석 통계 자료(나트륨 1.8배, 단백질 미달 등)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관적인 불만을 넘어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① (가)는 문제점을 지적할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지는 않는다.

③ 학생 인터뷰 외에도 통계 자료,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④ 서울 시내 고등학교 ‘세 곳’의 급식을 수거하여 분석했으므로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⑤ 학생과 전문가의 인터뷰는 있으나, 교사나 영양사의 입장은 다루지 않았다.

41. ①

㉠에서 ‘지아’는 급식 문제를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이랑 직결된 거잖아”라고 말하며, 이를 개인적인 차원의 불평이 아닌 학생들의 권리와 관련된 공식적인 문제로 재규정하고 있다.

㉡ ㉠에서 ‘지아’는 해결 방안으로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을 뿐, ‘선호도 조사’를 제안하지 않았다. 선호도 조사는 이후 ‘유나’와 ‘민혁’의 대화에서 언급된다.

㉢ ㉠에서 제안된 ‘위원회’는 급식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해결 방안이므로, 본래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에서 ‘지아’는 ‘민혁’의 수정안(“일단 건의문부터 먼저 제출하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라고 말하며 동의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은 설문 조사를 생략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의문 제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를 조율하자는 것이다.

42. ②

(나)의 대화에서 ‘민혁’은 객관적인 설문 조사를 위해 교육청의 표준 문항을 활용하자고 제안하며, 관련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http://...>)와 해당 페이지의 내용(‘학교 급식 만족도 표준 설문 문항’)을 보여주는 미리 보기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교육청의 표준 문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43. ④

‘서준’은 대화의 마지막에 “이걸로 건의문 쓰자”, “다 같이 검토하자”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자’는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하는 청유형 어미이다. 청유형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행동을 지시’한다는 설명은 ‘서준’의 발화 의도 및 문법 형태의 기능과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① ‘민혁’은 “아니, 설문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건의문부터 먼저 제출하자”라고 말하며, 연결 어미 ‘-(으)니까’를 통해 앞선 내용(시간이 걸림)이 뒤 내용(건의문 먼저 제출)의 이유가 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② ‘유나’는 “방어적으로 나오실 수도 있어”, “중요할 것 같아”와 같이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우려나 의견을 단정하지 않고 부드럽게 제시하고 있다.

③ ‘지아’는 “정식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긍정적인 방향을 강조해야 해”라고 말하며,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의미하는 ‘-어야 한다’를 반복 사용하여 자신들이 취해야 할 행동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민혁’은 “특히 나트륨 통계 나올 때 진짜 놀랐어”라고 말하며, 부사어를 통해 여러 정보 중 특정 정보(나트륨 통계)를 지목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놀란 감정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44. ②

게시물 마지막 부분의 ‘#부산여행’, ‘#강강이에술마을’, ‘#도시재생’ 등은 해시태그로, 게시물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어이다. 독자들은 이 해시태그를 통해 관련 주제의 다른 게시물을 쉽게 검색하거나 찾아볼 수 있다.

① 본문에는 표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독자는 댓글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원본 게시물을 직접 수정할 수는 없다.

④ 댓글 기능을 통해 독자의 주관적인 감상(‘신기하네’, ‘인상적이었어’ 등)을 공유하고 있다.

⑤ ‘작성일’은 표시되어 있으나, ‘실시간’으로 시간이 표시되지는 않는다.

45. ⑤

‘다혜’는 문래동 예술촌을 언급하며 두 공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두 공간의 차이점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두 공간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우열이나 차이를 분석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댓글의 긍정적이고 확장적인 의도와 어긋나는 부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① ‘성훈’은 교통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질문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은 독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적절한 수정이다.

② ‘다혜’의 댓글을 통해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글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적절한 수정이다.

③ ‘민지’의 댓글(“진짜 가보고 싶다!”)을 통해 글의 내용이 독자의 방문 의사를 자극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추천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수정이다.

④ 게시물에 사진을 추가하여 시각 정보를 보강하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 글의 매력을 높이는 일반적이고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